大韓方劑學會誌 : 제7권 1호
KOMP Vol. 7. No. 1. 1999.

장중경의 건강부자탕류 특징

김 용 호* 김 인 락 **

Ⅰ. 緖 論

장중경은 후한대에 그 당시 유행한 급성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잡병상한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약성이 강한 것이 많은데 생부자도 그 중 하나이다. 생부자가 든 처방은 『상한론』에 8종이 있으며 건강과 함께 처방의 기본을 이루므로 건강부자탕류라 한다.

건강부자탕류에는 건강과 생부자로 구성된 건강부자탕과 여기에 가미한 백통탕, 백통가저담즙탕, 회역탕, 회역가인삼탕, 복령회역탕, 통맥회역탕, 통맥회역가저담즙탕이 있다.

현재 임상가에서는 부자의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포부자를 사용하며 생부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부자가 독성이 강한만큼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크지만 구급약으로서 약효도 기대되어 검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한방약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약효의 표준화이다.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효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고 재현성은 적어진다. 표준화는 먼저 약재의 진위감별과 등급감별 2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상한론』과 『금궤요략』에는 『신농본초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중경방을 운용할 때 기원은 현행 『KP Ⅶ』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2』 나 『CP 1995』, 『JP XⅢ』 등을 따르고, 품질은 최고품으로 상품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건강부자탕류와 우두탕류의 약재 배합, 수치, 절단, 보관, 복용법 등 처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우선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원문에 근거하여 이들 처방의 내용과 수치, 절단, 전탕, 복용법 등을 고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乾薑附子湯 :
   乾薑一兩 附子一枚(生用, 去皮, 切八片)
   右二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頓服.
2. 白通湯 :
   葱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生,去皮,破八片)
   右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分溫再服.
3. 白通加猪膽汁湯 :
   葱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生,去皮,破八片)
   人尿五合 猪膽汁一合
   右五味,以水三升,煮取一升,去滓,內膽汁,人尿,
   和令相得,分溫再服.
   若無膽,亦可用.
4. 回逆湯 :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去皮,破八片)
   右三味,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去滓,分溫再服.
   强人可大附子一枚,乾薑三兩.
5. 回逆加人蔘湯 :
   甘草二兩(炙) 附子一枚(生,去皮,破八片) 乾薑一兩半 人蔘一兩
   右四味,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去滓,溫分再服.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

6. 茯苓回逆湯：

茯苓四兩　人蔘一兩　附子一枚(生用,去皮,破八片)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右五味,以水五升,先煮茯苓,減二升,內諸藥,煮取一升四合,去滓,溫服七合,日二服.

7. 通脈回逆湯：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生用,去皮,破八片) 乾薑三兩(强人可四兩)

右三味,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去滓,分溫再服.

其脈卽出者,愈.

面色赤者,加葱九莖.

腹中痛者,去葱,加芍藥二兩.

嘔者,加生薑二兩.

咽痛者,去芍藥,加桔梗一兩.

利止脈不出者,去桔梗,加人蔘二兩.

病皆與方相應者,乃服之.

8. 通脈回逆加猪膽汁湯：

甘草二兩(炙)　乾薑三兩(强人可四兩)　附子大者一枚(生,去皮,破八片) 猪膽汁半合

右四味,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去滓.

內猪膽汁,分溫再服,(其脈卽來).　無猪膽,以羊膽代之.

Ⅲ. 考　察

1. 처방내용

(1) 乾薑附子湯類

乾薑附子湯류는 건강부자탕과 여기에 가미한 처방으로서 백통탕, 백통가저담즙탕, 회역탕, 회역가인삼탕, 복령회역탕, 통맥회역탕, 통맥회역가저담즙탕 등 모두 8종이다.

(2) 乾薑附子湯

건강부자탕은 건강 1兩과 생부자 1개로 구성된다. 생부자를 건강과 함께 사용한 점이 특이한데, 이는 건강부자탕류에서 어느 한 처방도 예외가 없다.

(3) 白通湯

건강부자탕의 가미방 7종은 白通湯과 回逆湯으로 구분된다.

白通湯의 白通은 일반적으로 총백으로 해석하지만,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이나 桂枝加芍藥生薑人參湯의 경우를 살펴볼 때, 백통가저담즙탕이라 함은 백통탕에 저담즙만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통탕에 저담즙뿐만 아니라 인뇨까지 가미하여 모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白通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한서』「載就傳」에 "臥就覆船下, 以馬通熏之." 라고 하였는데, 註에는 "馬通, 馬矢也."라고 하였다. 『금궤요략』에서는 토혈이 그치지 않을 때 柏葉湯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馬通汁이 사용되었다. 마통즙은 말오줌이다. 그리고 『본초강목』「무」條에 의하면 "鴨通卽鴨屎也." 라 하였다. 이를 보면 백통은 소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백통탕에는 소변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1)

소변이 들어감에 따라 右三味는 右四味가 되어야 하며, 백통탕은 건강부자탕에 총백 4뿌리와 소변 반升을 가미한 약이 된다.

백통탕에 저담즙을 더하면 백통가저담즙탕이 된다.

(4) 回逆湯

回逆湯은 건강부자탕에서 건강을 1.5배로 증량하고 자감초를 2냥 가미한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평소에 건장했다면 회역탕에서 건강을 2배로 증량하고, 생부자를 크기가 보통의 것에서 큰 것으로 증량하는데, 이렇게 되면 처방내용은 통맥회역탕과 같다. 따라서 회역탕을 건장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통맥회역탕과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그리고 건강을 2배로 증량하였으므로 부자 큰 것이란 보통 것의 무게로 2배일 것으로 추정한다면 지름은 1.26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역탕에 인삼을 더하면 회역가인삼탕이 된다.

회역탕에 인삼과 복령을 더하면, 다시말하면 회역가인삼탕에 복령을 더하면 복령인삼탕이 된다. 이 2 처방은 모두 회역탕의 경우

처럼 환자가 평소에 건장하였다면 乾薑을 2배로 증량하고 生父자는 큰 것으로 증량한다.

通脈回逆湯은 회역탕을 증량했을 때와 내용이 같다. 그리고 통맥회역탕도 역시 환자가 평소에 건장했다면 乾薑을 4냥으로 증량한다.

通脈回逆湯에 猪膽汁을 더하면 通脈回逆加猪膽汁湯이 된다.

이상의 처방을 정리하면 표1. 과 같고 이를 다시 계통별로 묶으면 표2. 와 같다.

표1) 건강부자탕류 처방 8종

	처방명	乾薑	生附子(去皮)	人尿	葱白	甘草(炙)	가미약	물/1일분/회수
1	乾薑附子湯	1	1개	0	0	0		3/1/1
2	白通湯	1	1개	0.5승	4뿌리	0		3/1人尿/2
3	白通加猪膽汁湯	1	1개	0.5승	4뿌리	0	猪膽汁0.1升	3/1/猪膽,人尿/2
4	回逆湯	1.5 (3)	1개 (大1개)	0	0	2		3/1.2/2
5	回逆加人蔘湯	1.5 (3)	1개 (大1개)	0	0	2	人蔘1	3/1.2/2
6	茯苓回逆湯	1.5 (3)	1개 (大1개)	0	0	2	人蔘1 茯苓4	5茯苓/3/1.4/2
7	通脈回逆湯	3 (4)	大1개	0	0	2		3/1.2/2
8	通脈回逆加猪膽汁湯	3 (4)	大1개	0	0	2	猪膽汁0.05升	3/1.2/猪膽汁/2

표2) 건강부자탕류의 기본 처방 3종

	처방명	乾薑	生附子	人尿	葱白	甘草(炙)
1	乾薑附子湯	1	1개	0	0	0
2	白通湯	1	1개	1/2승	4뿌리	0
3	回逆湯	1.5 (3)	1개 (大1개)	0	0	2

2. 수치법

(1) 건강

건강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생강을 그대로 말리지만, 일본에서는 1번·찐 뒤에 말린다. 생강에는 6-gingerol이 6-shogaol 보다 10배나 되지만 찌고서 말리면 12시간뒤에는 1:1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gingerol 은 더욱 더 줄고 shogaol 은 더욱 더 많아진다. 그대로 말린다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랠 것으로 추정된다. shogaol은 gingerol 이 탈수

가 된 것인데, 진통작용과 진해작용이 강하다.2) 건강부자탕이나 백통탕, 사역탕 등이 散寒止痛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散寒止痛은 구급용이다.

그리고 건강에는 껍질을 벗기라는 주문이 없다.

(2) 부자

건강부자탕에서는 부자를 生으로 사용하였는데, 생부자는 散寒止痛하면서 回陽救急하였는데, 건강과 함께 사용한 까닭은 건강도 散寒止痛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생부자는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Aconitine이 작용하는데, Aconitine 중독증으로서 3단계가 있으니, 일시적으로 강심작용을 한 뒤, 전도장애로 인하여 심박동이 억제되고, 끝내는 확장기가 정지된다. 18℃보다 낮으면 강심작용이 중독증상보다 우선한다.4) 뿐만아니라 골격근을 마비시키는데 특히 운동신경이 많이 분포한 사지, 귀, 눈 등의 근육을 마비시키며, 나중에 호흡근과 횡경막을 마비시켜 질식사하게 한다. 부자는 장에서 흡수가 빠르므로 중독도 1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빠르면 10여초만에도 나타난다.

생부자와 건강을 함께 달이면 성분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생쥐에 투여한 결과 생존률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다.[5]

생부자는 보통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양증에 걸린 자에게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중독증상이 나타나지만 망양증 환자에게는 염려가 없다.

약 하나만으로 독약인가 아닌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는 어렵다. 약제와 약제 그리고 사람 병 그리고 계절을 생각해야 한다. 기온이 18℃가 넘을 때 부자를 복용하면 Aconitine 중독이 쉽게 된다. 기온이 이보다 낮으면 중독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몸상태가 망양에 가깝다면 아코니틴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를 백호가인삼탕에서 볼 수가 있다. 『金櫃要略』의 주문에 의하면 입하에서 입추때 까지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후로는 사용을 금하였고 1,2,3월에도 금하였다. 망혈가와 약한 자에게도 금하였다.

건강은 去皮를 하지 않았지만, 생부자는 去皮를 하였다.

3. 절단법

건강의 경우 절단크기에 대하여는 주문이 없고 생부자는 8조각 내게 되어있다. 계지탕에서 다른 처방들은 모두 계지탕의 경우를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咬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咬咀는 콩알이나 팥알 정도의 크기로 절단, 또는 파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한론』에서는 표준이 된다.

그런데 생부자의 경우는 포부자와 함께 8조각내도록 주문되어있다. 건강부자탕에서만 절팔편이라 하였고 다른 처방에서는 파팔편이라 하였다. 포부자도 破八片한다. 반하의 경우 분량이 소반하탕에서는 1승인데 대반하탕에서는 2승이다. 그리고 소반하탕에서는 반하를 물로 씻고 깨뜨리라고 되어있는데, 대반하탕에서는 통채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를 보면 반하는 분량이 적을 때는 잘게 쪼개어 사용하지만, 분량이 많아지면 크기를 크게 하여 사용한다.

다만 『금궤요략』「부인산후병맥증병치」 제21 죽엽탕에서 산후중풍증에 頸項强이 겹치면 부자를 큰 것으로 바꾸어 '깨뜨려 콩알크기로 한다(破之如豆大)' 라고 한 것은 예외이다.

8조각 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칼질을 4번하여 세로로 8조각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번하여 세로로 4조각 낸 뒤 가로로 2등분하는 것이다.

4. 전탕법

(1) 물량

건강부자탕을 제외한 나머지 처방 7종은 달일 때 넣는 물량이 3승이고 달인 뒤의 약량이 1.2승이며 이를 반으로 나누어 2회 분복하므로 복용량이 일반적으로 1승인 것에 비하여 매우 적다. 부자를 Aconitine 의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오래동안 달이는 방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잠시만 달이는 이유는 亡陽證이 응급을 요하므로 약도 재빨리 달여야 할 뿐아니라 대개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약을 먹지 못하고 간호자가 먹여주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한론』의 1升은 미터법으로 70ml 이 된다.[6]

건강부자탕만은 단번에 모두 복용하므로 1회 복용량이 1升으로 다른 처방 7종에 비해 복용량이 조금은 많은데, 건강부자탕이 가장 위급한 때에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복령 전탕순서

복령회역탕은 전탕시 달이는 약에 선후가 있다. 복령은 다른 약들 보다 먼저 달이게 되어있는데, 물 5승을 넣고 복령을 먼저 달여 물이 2승 줄어들면 다른 약들을 넣고 달이게 되어있다. 복령에 물을 5승 넣고 2승을 졸였기 때문에 다른 약재를 넣을 때는 물이 3승이 되어 다른 처방들과 일치한다. 다만 달인 뒤 복용할 때의 양이 다른 처방은 1승이나 1.2승이지만 복령회역탕은 1.4승이다.

복령을 먼저 달이는 영계감조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복령을 먼저 달이는 이유는 복령의 균사가 치밀하여 두께가 2mm만 되어도 1시간을 달여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7] 다만 한국에서는 통상 복령을 대패질하여 종이처럼 얇으므로 이를 필요는 없다고 추정된다.

(3) 저담즙과 인뇨

백통탕과 백통가저담즙탕, 통맥회역가저담즙탕에서는 저담즙과 인뇨를 달이지 않고, 다른 약을 달인 뒤 찌꺼기는 버리고 전탕액에 타서 복용하게 되어있다.

5. 복용법

건강부자탕을 제외한 7종 처방에서 따뜻하게 하여 먹이도록 규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자가 든 약은 식혀서 먹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건강부자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지만 다른 처방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복용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건강부자탕은 약을 달인 뒤 한번에 모두 먹도록 되어있으므로 달인 약이 식기를 기다릴 것도 없고 새로이 데울 필요도 없기 때문이며, 더구나 구급용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강부자탕류는 생부자가 사용되었음에도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Ⅳ. 總 括

건강부자탕류는 건강부자탕과 이에 가미한 백통탕, 백통가저담즙탕, 회역탕, 회역가인삼탕, 복령회역탕, 통맥회역탕, 통맥회역가저담즙탕 등 처방 8종인데 이 처방 내용을 정리한 결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처방내용은 생부자와 건강을 함께 사용하고 여기에 가미한다.

   8종을 계통별로 묶으면 건강부자탕, 백통탕, 회역탕 3종이 된다.

   백동탕류에는 백통탕과 백통가저담즙탕이 있고, 회역탕류에는 회역탕과 회역가인삼탕, 복령회역탕, 통맥회역탕, 통맥회역가저담즙탕이 있다.

   백통탕의 백통은 소변을 의미하고, 백통가저담즙탕에 人尿가 있으므로, 원 처방에 人尿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역탕, 회역가인삼탕, 복령회역탕은 복용

할 환자가 평소에 건강하였다면 건강의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생부자는 크기가 보통의 것에서 큰 것으로 늘리는데 무게가 2배라고 추정하면 지름은 1.26배가 된다.

통맥회역탕은 회역탕의 복용량을 늘린 경우와 같으며 통맥회역탕을 복용할 환자도 건장하였다면 건강을 3兩에서 4兩으로 증량한다.

2. 수치법은 건강은 去皮를 하지 않고, 생부자는 去皮한다.
3. 절단법은 건강은 咬咀하여 건강은 咬咀하여 콩알이나 팥알 크기로 한다. 생부자는 8조각 내는데 잘게 절단하지 않는 까닭은 부자의 독성을 줄일 목적으로 추정된다.
4. 전탕법에서 물량은 210ml(3升)이고 달인 뒤의 약량은 84ml(1.2升)이며 42ml씩 2차례 복용한다. 달인 약량이 적은 것은 급증으로 빨리 달여야 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먹여주어야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건강부자탕만은 달인 뒤 70ml을 1회에 모두 복용한다.

복령은 먼저 달이는데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며, 저담즙과 인뇨는 달인 약에 타서 복용한다.

5. 복용법은 생부자가 든 처방이지만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參 考 文 獻

1) 山正前眞 : 傷寒論集成, 797-798.
2) 油田正樹: 生薑・乾薑の藥理, 現代東洋醫學, 8(1), 1987, 45-50.
3) 北川勳・吉川雅之 : 生藥の修治-附子と人蔘, 現代東洋醫學, 6(4), 1985, 101-110.
4) 矢數圭堂 : 附子の寒冷に對すれ抵抗作用に關すれ實驗第 1報, 日本東洋醫學會誌, 16(2), 1965, 14.
5) Fumihiko Yoshizaki・Masami Houga・Manami Takada・Yoshie Komatsu : Influence of coexisting crude drugs on the acute toxicity of Acute root in mice, 和漢醫藥學會誌, 10(3), 1993, 161-165.
6) 金仁洛 : 韓國本草醫學研究會誌, 2(2), 1999, 투고중.